전기차/배터리산업

화재 계기로 전기차 시대 위한 시스템 확보와 비용 부담 공론화 필요

그린산업 포인트

전기차에 대한 화재 사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책임 소재를 두고 지엽적으로 흐르고 있어. 이보다 전기차 시대로의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스템 확보 방안과 비용 부담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Green Industry 한병화_ 02)368-6171_ bhh1026@eugenefn.com

- 전기차 화재가 지속되면서 책임 소재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 리튬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는 배터리 타입, 제조사, 제조국과 관계 없이 진화가 어려운 화재가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이라는 상위의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
-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시대를 수용하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과 비용 분담이 필요
- 안전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전과 공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의 구비가 법제화 되어야
- 인프라/ 환경 수용성 위해서는 전기차 대중량화에 따른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배터리 제조 환경기준 설정 갖춰야
- 경제적 수용성은 가솔린/경유 세수 부족액, 안전 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 전기차로 인한 고용감소 대비 필요
- 전기차 시대가 재확산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 공감이 선결
- 단기적으로 후퇴한 미국과 유럽의 육성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나타나면 전기차 시장 재성장 모드 될 것

전기차 시대 위해 다양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필요

구분	내용
안전 수용성	✓충전 한도 설정 법제화와 한도 도달 시 자동 차단 시스템 의무
	✓셀 이상 감지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충전기 의무
	✓충전 구역의 이격 거리 확보와 소화 키트 비치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구역 상하방 동시 스프링 쿨러 설치
인프라/환경 수용성	✓전기차의 대중량화를 근간으로 한 도로, 교량 하중 재산정 정비 필요
	✓주차 공간의 하중 설계 기준도 상향되어야
	✓무게와 급가속/제동으로 인한 타이어 유발 미세먼지 기준 설정
	✓배터리 제조 관련된 환경 기준 별도 설정 필요
경제적 수용성	✓가솔린/경유 세금 부과액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분담 방안
	✓안전 수용성 확보 위한 투자액 부담 방안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고용 감소 최소화 방안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전기차 화재 논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전기차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고 피해가 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화재의 책임 원인에 대한 시시비비가 이어지면서 배터리의 원산지, 제조업체, 나아가 특정 전기차 업체로 비난이 집중되었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최근 국내의 논란은 근본 원인은 경시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에만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리튬을 배터리도 사용하는 전기차는 배터리의 타입, 제조국과 기업에 관련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며 이를 인정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비용 분담 로드맵을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전기차 시대 맞을 사회적 수용성 갖추어야

각종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반드시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내연기관차로는 탄소감축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전기차 전환은 글로벌 합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안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전/충전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량화된 전기차의 확산을 근간으로 한 도로/교량/ 주차 공간 등의 인프라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배터리 제조를 위한 환경기준의 설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솔린/경유 세금 부과액 감소에 따른 재정 분담,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고용 감소 관련 비용, 안전과 인프라/환경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 년이 넘은 내연기관차 시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사회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전기차 시황의 부진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황의 부진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산업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후퇴하고 있고, 전기차 고유의 안전과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당면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대의 완벽한 전환은 일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U 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일부 유연화하겠다는 논란을 거두고 강력한 연비규제를 재도입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의 부활도 필요하다.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연속이 되면서 낮춘 연비규제를 순수 전기차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차/배터리 관련주들은 이를 확인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를 권고한다

도표 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2,007	2,622	3,440	4,456	5,578	6,746	7,973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770	2,331	3,079	4,015	5,039	6,087	7,169
YoY(%)	51.2	56.3	23.2	31.7	32.1	30.4	25.5	20.8	17.8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10.7	13.7	17.6	22.6	27.8	32.9	38.0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15	10,567	12,479	14,559	16,736	18,947	20,845	22,508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039	11,816	13,724	15,679	17,609	19,127	20,272
YoY(%)	83.7	36.6	24.0	17.7	16.2	14.2	12.3	8.6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2.4	37.0	41.7	46.3	50.5	53.2	54.8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810	975	1,159	1,367	1,607	1,908	2,294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308	3,722	4,194	4,735	5,357	6,173	7,092
YoY(%)	15.1	18.1	7.6	12.5	12.7	12.9	13.1	15.2	14.9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4.3	26.8	29.6	32.8	36.4	41.1	46.3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505	19,622	23,190	27,153	31,354	35,502	39,606
YoY(%)	55.0	35.7	20.6	18.9	18.2	17.1	15.5	13.2	11.6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4	21.2	24.3	27.9	31.6	35.1	38.4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6.30 기준)